



## 광주 서구 용두동 학봉마을 불법도로 폐기물사용 '말뼉'

최근 광주시 서구 용두동 학봉 마을 뒤편 도로를 개설하면서 불법 폐기물을 사용해 말뼉을 빚고 있다. 이도로는 너비 3.5미터에 길이 150미터로 조성중인데 각종 건축 폐기물을 사용해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도로는 학봉마을 뒷편 건축물 공사로 인하여 불법으로 야산을 훼손해 경관 훼손은 물론 불법 폐기물로 주민들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회사인

강천 건축사 (전북 순창 소재)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물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도로를 건설하면서 불량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건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시 서구 용두동 학봉 마을 뒤편 도로 건설이 말뼉을 빚자 주민들인 광주시 서구청은 건축주 정 모 씨에게 원상 복구명령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

k 모 씨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사용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이 입을 것이 뻔한 상태다"면서 "원상 회복이 된다 해도 야산 훼손으로 마을 경관이 크게 망가졌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씨 형사재판 4개월 만에 재개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던 전두환(89)씨의 형사재판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가 출석하지는 않지만, 향후 전씨의 법정 출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6일 오후 2시 법정종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이 속행한다. 재판장 변경 뒤 첫 재판이다.

전씨 재판을 진행하던 법원이 지난 1월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하면서 지난해 12월16일 이후 멈춰 있던 재판이 112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이번 일정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전씨는 출석하지 않는다.

새 재판장은 그동안의 기록을 검토한 뒤 법정에서 검사·변호인과 함께 세부 일정을 다시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이 2018년 5월3일 전씨를 기소하면서 시작된 이 재판은 연기를 거듭하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면서부터 본격화했다.

1980년 5월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시민과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뤄졌다.

전씨는 앞선 재판장의 허가로 지난해 3월11일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 재판장은 향후 재판 일정 논의와 함께 전씨의 법정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이 바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정길화 기자

## 총선 삼킨 코로나19, '깜깜이 선거·투표율 하락' 우려

사상 초유의 전염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총선 이슈를 삼키면서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와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지난 2월20일 코로나19 최초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창궐하고 있는 데다 선거운동까지 제한돼 상당수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은 물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야할 상황이다.

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2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여야 정당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상 초유의 전염병 창궐로 선거운동 제한 유권자, 후보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야할 판 코로나19 공포감 속 투표율 하락까지 우려

대규모 동원 유세나 다중장소 선거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대신 개인방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정책공약과 선거운동 상황을 알리며 후보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들이 길거리에서 삼삼오

오 모여다니며 쓰레기 줍거나 방역활동으로 후보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와 SNS 지인맺기를 하거나 검색하지 않을 경우 후보와 공약을 알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방송토론회도 모두 평일 주간시간대에 열려 회사원들은

시청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총선에 관한 토론과 이슈가 활발하게 생산되지 않는 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선거 관심보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더 커 확진자 수나 동선, 사망자에 대한 소식들로 유권자의 SNS가 채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생활패턴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고 정채홍보 대신 '여당론' 확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은 '여당론'에 맞서 '인물론'과 '정치개혁'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은 기색이다.

코로나19가 총선 이슈를 덮으면서 투표율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총선 연기론까지 나왔음에도 그 그동안 정치권이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 투표율 하락이 예상된다"며 "투표율 하락은 결국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정 광주시선관위 홍보과 주무관은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을 체크해 발열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중곤 기자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해봅시다!

**COVID-19**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치 기움에는

**의회** **고흥군의회**

GOHEUNG-GUNCOUNCIL

<http://igoheung.com/>